

탁아활동의 길잡이
1월 20일

고사들의 소식지

1992년 7월 창간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 ▣ 창간호를 내면서 /
소식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 최현숙

차 3 ▣ 만나보았습니다 /
광주지역위원회 시조례제정팀을 찾아서 /편집부

례 5 ▣ 기획 /
성폭력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편집부

9 ▣ 교사조직 /
탁아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교사조직본과

22 ▣ 활동총괄 /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23 ▣ 교사가 쓴 동화 /
마치와 마마귀 /김 난희

25 ▣ 소식과 소식 /
연합회, 지역위원회, 모임과 모임

35 ▣ 우리들의 목소리 / 1. 요구대회를 마치고
2. 준비호를 읽고

39 ▣ 편집부에서

8 ▣ 탁아관련 기사모음

34 ▣ 권하고 싶은 책

☆☆표지 사진 : 지난 6월21일 요구대회중 최현숙회장이 지탁연 깃발을
흔들고 있다.

지타연 활동의 원활한 만남의 장 -교사용 소식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최 현숙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회장)

탁아운동이 활발해지고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각각의 활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각각의 활동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활동에 [동맥경화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때 활동시기를 평가할 때 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결코 누구의 잘못이거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활동 조건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각 탁아소에서 일상활동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지역활동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 특히 지역대표의 경우 단위의 일상활동과 지역활동 나아가 중앙의 모든활동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상하부의 논의 전달과 역할공유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막힘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교사용 소식지이다. 한 권의 소식지를 통해 우리활동의 전체를 파악하고 또한 교사 개인의 바램과 갑갑함을 이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식지의 발간은 너무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식지를 통한 적극적 만남은 우리활동력을 강화해 줄 것이나 더불어 요청되는 것은 교사 모두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것은 소식지가 단순히 의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임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참여속에서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식지를 통해 우리 모두 긴밀한 만남을 나누자. 그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보다 단결된 힘으로 탁아운동을 꽃피우자.

광주지역위원회 시 조례제정팀을 찾아서

'매월의 인물'란을 '만나보았습니다'로 변경합니다. 그달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지역위원회, 각 본과 모임, 연구팀 등 좀 더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모임이 있다면 언제라도 편집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탁아에 관한 시 조례안을 만든 광주지역위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 편집부 -

현재 광주에서 활동중인 도담도담 아기둥지, 우리동네 아기둥지, 계림 아가방, 무진 어린이방 등 4곳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주지역 위원회는 92년도 사업목표를 탁아소의 양적 확대, 광주지역 탁아운동세력 확보, 정부의 재정지원, 회원간의 결속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에 탁아문제 홍보와 탁아운동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첫번째 사업으로 탁아에 관한 시 조례안을 만들기로 하고 시의원, 지역연주소등과 연대하여 92년 4월 14일 '탁아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꾸렸다.

모임은 만들었으나 조례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막막하고 암담했다고 그 당시를 얘기하는 박말신(도담도담 아기둥지교사)광주지역위원회 대표.

하지만 다른 부분의 조례를 공부하고 영유아 보육법을 여러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육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항, 보육시설에 관한 조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조례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4월 16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으로 탁아조례의 필요성, 조례 초안 검토, 광주지역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기초발제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기획하였다. 간담회 이후 생긴 에피소드 한 토막이 있다. 국공립시설 이용가정중 월소득 60만원 미만이 아님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가정이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혜택을 받게 된 사례들을 광주지역

1)현재 광주지역 탁아소 연합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나, 내부 소식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 소속 교사의 친구가 동사무소 사회 복지요원으로 있던 관계로 밝혀졌는데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 되면서 이 사회 복지요원이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고 시청,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는 등 많은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본의아니게 그 친구에게 피해를 입게 해 아직도 미안하다고 박말신 대표는 이야기 한다. 간담회 이후 조례안 재정비를 위해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면서 내용이 수정되고 “보육시설 관계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자로 모 교수를 섭외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교수가 광주시 보육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광주지역위 교사들은 참담했다. 광주시에는 보육위원회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안일이지만 광주지역위원회가 조례제정을 준비하는것을 안 광주시에서는 부랴부랴 보육위원회를 급조했다는 것이다. 보육위원인 모 교수는 토론자로 자신이 섭외됨을 알고는 본인과 광주지역위는 수준이 맞지않아 참가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면서 거절하였다.

다행히 다른 교수가 섭외되어 행사를 치룰 수 있었는데 당일 다른 집회들이 지역에서 있던 관계로 참석은 많이 하지 못했다. 이를 보고 시청 가정 복지과장이 “엑기스만 모였구만”하면서 비꼬더라. 토론회 중에 가정복지과장의 입을 통해 탁아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제삼 확인 하였는데 “떡이 열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겠냐 ” 하더라나?

어쨌든 보육위원회를 급조하고 수선을 피우는 걸 봐서 광주지역위가 무시못할 존재임을 널리 알렸고 실제 탁아문제를 지역내에서 선전, 홍보 할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 였다는 자평이다.

”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어야 한다”

여성단체연합이 올해의 중점사업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놓으면서 회원 단체등에서 성폭력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기위해 성폭력의 실태, 관련법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알리고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로 성폭력 문제를 바라 보기를 바라면서 주의깊게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

1. ”참을 수 없는 성충동?”..... 성폭력 부추기는 사회구조

성폭력은 여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을 매개로하는 강제 즉,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의 범주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 추행, 강간미수,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어린이 성추행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행위의 폭력만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직장내에서의 음담패설, 성적 희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란전화, 추파, 성적농담 등 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또한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들의 변명은 “여자가 유혹해서” “그렇고 그런 여자니까” 참을 수 없는 성충동에 의해”라고 한다.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이란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이중적 규범, 즉, 성충동이라는 미명아래 남성에게는 허용적이면서도 여성에게는 순결=목숨임을 강조하는 규범에 의해 여성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야만 하는 일방의 주의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순결이데올로기의 작용은 불가항력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폭력적 범죄로 바라보기 보다는 정조를 잃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나 성폭력을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 동의적 성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축소, 왜곡하여 결국 여성에 의해서 저질러져 여성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자 유발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성폭력을 성

기중심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적학대나 성의 유린 등을 포괄하지 않음도 문제이다. 이러한 그릇된 통념들로 인해 여성이 강간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어도 순결을 잃었다는 사회적 비난으로 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고 책망하여 죄의식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한국사회의 남성이 날로 포악해졌다는 것의 반증일까?

그렇다기 보다는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제도화된 수탈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들 수 있다. 즉, 한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한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취업기회의 부족과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 전반적 사회복지 제도의 후진성,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일반적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

둘째는 향락산업의 비대화와 성폭력 문화의 증대이다. 80년대 들어 향락 퇴폐업소가 급성장하였고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도 150만으로 추산되는 등 역대정권의 3s(섹스, 스크린, 스포츠)정책과 이윤추구를 제1목표로 하는 독점자본과의 결합으로 향락산업에 투자는 나날이 증대해 왔다.

세째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여성의 경제적 무능력, 남성의 지배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남성이 당하는 정치경제적 소외와 고통에 대해 여성이 제공되고 상품화된 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2. 성폭력의 종류

성폭력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에서부터 직장내, 나아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져 남성의 성적 노리개가 됨은 물론 직장내 노동자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까지 쓰이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유형을 살펴 보면 우선 원시적 형태로서 결혼수단으로 성폭력이 행해진다.

둘째로는 직장내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성폭력인데 이는 성차별이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위해 저임금, 차별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면서 노

조활동,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성폭력이 행해지며 한편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아닌 성적대상물로 취급됨을 보여준다.

세째로는 일반적 강간으로 생각하는 강간이 있다.

네째로는 민의를 대변하고 민중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87년 고흥군 입산부, 88년 대구 강정순씨 등 고문사 문귀동과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짐으로써 정권의 반민중성,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자주없이 순결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이다. 해방 이후 계속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의 유린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오만한 태도로서 무시되어지거나 보호를 받아 이에 대해 자주적 삶을 지향하고 외세에 의한 성침탈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3. “특별법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가 재수없는 혹은 끼이는 여성들의 문제가 아닌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인데 있다면 그 대안 또한 사회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이 제기되는 이유는 성폭력이 급격하고도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현행법이 통제할 수 없는 한계와 유아 성폭력 및 성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현행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성폭력에 대한 법적장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법에 우선하는 단일화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현행 성폭력 관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형법32조 “정조에 관한 죄”항목에서 성폭력은 정조문제이기 전에 폭력적 문제이므로 ‘정조’라는 용어가 ‘성폭력’, ‘성범죄’, ‘약자(여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정조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도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범법의식을 피해자에게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덜어주어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의 순결상실이 생명의 상실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을 명확히 폭력으로 인식하여 피해자가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3) 현재 공소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심리적 충

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유아성폭행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이었음을 알게되므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현행 공소시효를 연장하든지 폐지해야한다.

4) 유아성폭행의 경우 아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특별법에서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5) 고소율이 2.2%에 그치는데다 그중 3분의 1만 기소되고 실형선고는 또 그중 3분의 1만 받으며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량이 적다.

또한 현행법 운용상의 문제 및 대책으로서는

- 1) 피해자 중심의 재판운영으로 전환되고
- 2) 여경찰관, 여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 3) 원할때는 비공개 재판으로
- 4)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5) 근친강간 피해 어린이에 대한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6) 긴급구조기구 설치로 위기 상황시 도움을 주거나 법적 절차를 도울 수 있는 기구 설치
- 7)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육 실시 등이다.

**** 타아관련 기사 모음 ****

- * 5/26 동아일보 : 타아비용 허리핀다. 국민가게 경제연구소 밝혀
- * 6/11 한겨레 : 무자격 보육교사 교육된 자격증 주기로
- * 6/17 한겨레 : 단체협약 통해 타아소 마련 . 동방어린이집 소개
- * 6/19 동아일보 : 국립 타아소 설치 무산 위기
- * 6/21 한겨레 : 취업주부 '젓먹이타아' 큰 호응
- * 6/22 한국 일보 : 민간타아소 정부서 지원대상 늘려야, 6/21요구대회 내용 소개
- * 6/28 한겨레 : 기지촌 어둠 밝히는 '희망의 공동체' 동두천 다비타의 집 소개
- * 6/28, 30 한겨레, 조선일보: 남북한 타아제도 비교 세미나 소개

타아활동가의 올바른 품성과 자세

아래의 내용은 지난 3월 간부대회 이후 타아활동가의 품성과 자세에 대한 내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사조직본과에서 5월, 6월 기간동안 논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것입니다. 타아활동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같은 공간내 동지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부 -

I.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말 , 우리는 지탁연 간부대회를 통해 지탁연의 허리인 임원간부의 강화와 그를 통한 지탁연의 조직력강화를 꾀했다. 간부대회 내용중 타아활동가의 품성과 자세를 고민하면서, 간부로서의 역할수행에 난관이 되는 점을 모아본 결과 많은 수의 간부들이 지탁연 지도부 (대표자회의)에 대해 강력한 지도성, 기민한 추진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견 수렴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다. 또한 지역내 간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혼란 구조의 부족, 개별 타아소내 활동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간부로서의 역할수행에 적잖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 조직본과에서는 활동가의 자세와 품성에 대한 자체 세미나를 통해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놓고 개별 타아소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조명, 평가하였다.

이글이 타아활동가로서 동지애를 확인, 강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활동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타아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극복하자 !

-연합회를 강화시키는 방안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의 기본은 개별 탁아소이다. 개별 탁아소는 뿌리에 해당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소속 탁아소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너무나 강함으로 해서 우리의 몸전체에 비교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의 강화에 적잖은 악영향 (?)을 주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분명 소속은 연합회이나 각집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가」는 연합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나」는 연합회의 발전 보다는 개별 탁아소의 이해가 급선무로 나타나는 상황을 왕왕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불신하게 까지 된다. 우리가 해결하고 투쟁할 것은 도처에 깔려 있다. 자 ! 이제는 사무국=중앙=연합회라는 저급한 사고를 깨고 우리 모두의 조직, 모든 교사가 주인이 되는 연합회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조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의 연합회를 강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 보자.

* 연합회를 강화시키는 방안

(1) 탁아교사 양성교육이나 지탁연 활동 입문 과정에서 소속감,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으로 자기 조직으로서의 신념을 키우기 위한 극기 훈련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골간체계인 중앙-지역대표자회의-지역-각집 체계에서 지역대표자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대표자는 떠맡기기식이나 경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장 민주적이고 치열한 구성원의 고민속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전제는 지역대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인정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연합회 전반에 대해 고민을 집중하고, 사업을 분화 시키는 연합회 사무실은 회장단과 사무국원이 상주한다. 사무국에서 무슨일을 하느냐가 공개, 선전 되어야 하며, 지역, 각 집에서는 이에 대해 가능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하부의 고충과 성과를 격려하고 이해 할 수 있다.

(4) 지도부의 권위와 지도성은 전체의 교사가 지도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5) 지역대표,분과장,지역위원회 임원만이 전체 연합회 조직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맡은 각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실행해 나갈때만이 중요 역할을 맡은 성원 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다가 설수 있게 된다.

(6) 탁아소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탁아활동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사고 속에서 보다 조직적, 집단적 의식을 가지며, 그속에서 조직내의 다른 성원들과의 연대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각 집에 대한 소유욕,개인사업화 하는 경향이 강함으로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역위원회 체계속에서 올바르게 혁신하도록 해야 한다.

나 개인이 운영한다하더라도 탁아운동에 헌신하려는 자세는 다른 지역의 성과는 이어받고 오류는 고쳐나가는 자세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전체 조직차원에서 교사 조직 관리가 강화 되어야 한다.

한 방법으로 교사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사 교환을 통해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에 처한 탁아소를 보다 깊게 이해 하는 한편 공동의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탁아소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을 수 있다.

(7) 현재 지난 시기에 없었던 중앙 분과의 활동과 (아동교육,교사조직,자모조직) 특별활동의 강화로 인하여 사무국의 집행력 강화가 제기된다.

현재 사무국내 문화 홍보 간사의 공석으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 이의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아울러,

① 유휴 노동력의 이용 -> 임신 휴가중이나 출산 휴가시,아직 배치받지 않은 교사등이 한달에 서너번 사무국의 잡무를 도와 주어 일손 부족을 해결

② 사무국장과 총무 간사의 업무 분리

③ 체계적인 구성원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④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수렴과 조직 성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위한 문화선동대,다양한 소모임 꾸리기 등을 고민할 수 있다.

⑤ 사무실의 인력 관리를 위한 복지,후생에 힘쓰자.->적절한 인건비 보장

Ⅱ.교사간의 동지애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지이다.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기위한 신념을 가지고 험난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교사들이 바로 우리의 동지이다.

그러나 동지라는 호칭은 서로 약속 한다고 해서 또는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붙여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지고 굳혀지는 것이다.

이땅에 진정한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동지를 만날 때이다. 활동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동지로 인하여 굴하지 않고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활동은 결의 동지에 내가 깊숙히 들어가고, 내속에 그를 깊숙히 빠지게 하는 작업이다. 동지간의 사랑은 우리의 활동에서 제일로 쳐야할 덕목이다. 각자가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동지를 만들고 동지애를 키우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나. 서로의 생각 차이를 줄여나가는 운동을 벌이자.

->탁아운동론의 정립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학습하면서 탁아운동의 전망을 함께 내오면서 그속에서 끝까지 함께 활동하는 동지가 될 것을 결의하자.

->우리는 탁아 활동가임을 자각 하면서 지역과 개별 탁아소를 뛰어 넘는 연대 의식을 강화 하자.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속에서 같은 점을 찾아나가야 동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 된다. 엉뚱한 문제로 대들어도, 앞 뒤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도 미운점에 두기보다는 긍정성에 점수를 주고, 서로의 자주성을 고양 시키는 작업을 활발히 벌이자.

둘. 구성원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자.

->교사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갖고 서로에 대해 구석 구석 파악하자.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항상 마련 하자.

->지역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마련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계발 되고 실행 되어야 한다.

->소식지를 이용해서 지택연 전체 구성원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자.

->모두가 만나는 수련회를 이용하여 동질감을 회복하도록 한다.

셋. 활동기간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적, 집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자.

->우리는 변미양 교사의 사고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넷.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지의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눌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키우자.

다섯. 동지의 잘못된 점을 비난하고 포기하지 말고 변화 시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동지는 변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여섯. 동지에게 먼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마련해 주고 넉넉한 자세로 기다려 주며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자. ->동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일곱. 동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덮어두거나,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자.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넘기 어려운 벽이 되어 버린다.

여덟. 활동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자.

아홉. 서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자. 최대한으로 유형, 무형의 정보, 기술, 인간, 지식, 기쁨을 전수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자.

->잘 키운 동지하나 열남자 안 부럽다.

열. 너와 나만이 아는 음모적 사업 작품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객관화, 공개화 하자.

열하나. 동지의 비판과 비난에 부끄러워 하고 자학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 들이자. ->욕도 관심의 한 표현이다.

<자기비판과 상호 비판의 원칙>

조직규율과 원칙을 위반할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비판이 가해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조직적 대오를 강화,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1. 자기가 범한 과오를 숨겨두지 말고 대범하게 인정하고 동료앞에 허심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범한 과오를 더 빨리, 더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료에 대한 비판을 옹계 하려면 먼저 그 동료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며 결함을 고칠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주어

어야 합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따뜻하고 진실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료의 잘못을 지적해 줄때는 그때 그때 해야합니다.

4. 동료의 성격과 당시의 조건과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5. 비판한 다음에는 적당한 일을 주고 수행과정을 보면서 도와 주어 동료의 결함을 끝까지 고쳐주어야 합니다. 결함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건설한 비판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비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동료의 비판이 다소 부정확한 것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허심 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둘. 일이나 동지의 자세, 품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변화된 점이나 개선된 점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지적, 칭찬 하자.

열셋. 근무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근무시간외라도 언제나 일을 찾아 사생활을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자.

열넷. 동지의 건강에 대해 내가 먼저 신경쓰고 배려하자. 동지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이다.

-> 낮잠은 내가 먼저 청소는 내가 먼저!

열다섯. 사업의 성과와 공은 동지에게 돌리고, 잘못과 모자람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짓고 고쳐 나가자.

열여섯. 공명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행세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일해 나가자.

Ⅳ. 탁아소 교사간의 인간 관계 갈등 유형 분석

가 유형 1) 일반형: 경력교사, 신진교사간의 갈등의 경우

1. 문제상황

① 신진 교사의 경우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 및 문제 해결을 무조건 선배에게 의존 함으로써 (의존을 강요(?) 당함으로써) 선배로부터 해결 방안이 충족 되지 못할 경우 몇개월 되지 않아 탁아 활동을 포기하려 한다.

② 경력 교사의 경우 신진 교사가 경험이 없다고 하여 역할분담에서 제외시키거나 논의 결정 구조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시한다.

2. 원인

① 탁아소 상황 : 신진 교사의 입문 과정시 각집 혹은 지역별로 제반 탁아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구조가 없다.

② 주체 상황 : 탁아 활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인내속에서 펼쳐나가야 할 대중활동의 부분이라는 것과 신성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이해와 의식이 부족하다.

3.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교사 유동이 있는 경우, 교사간의 확실한 교체기를 갖도록 명문화된 내규를 마련한다.

② 신진교사에 대한 입문 교육을 실시하고, 신진교사라 하더라도 자기 역할과 영역을 가질수 있도록 배려하되 너무 무리한 요구를 처음부터 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배울수 있는 수습, 견습 기간을 설정해서 소외감, 열등감을 극복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③ 신진 교사의 경우 모든것을 선배에게 의존하는 자세보다 자신이 할수 있는 수준과 역할에 맞는 일을 찾고 매사에 탐구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속에서 신진 교사는 각 탁아소의 상황과 활동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문제점이 드러났을시에는 그간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결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반면 경력 교사의 경우도 후배를 올바르게 이끌어준다는 입장에서 신진 교사의 수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애정과 배려심을 지녀야 한다.

신진 교사의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의지와 열정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때때로 이의 표현을 거칠게 하여 경력 교사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경력교사는 여유있는 마음으로 신진 교사가 탁아소 상황과 조건을 정확하게 타산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④ 신진교사가 들어 왔을때는 반드시 입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자원활동기간과 견습기간, 보조교사 기간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과정마다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여, 서서히 활동에 젖게 할수 있도록 훈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던가 급하다고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활

동에 임했을때에 많은 경우 단기간의 활동으로 그치는 수가 많다.

⑤ 올바른 아동 교육가, 대중 활동가로서의 자부심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⑥ 교사회회의는 반드시 정례화 함으로써 교사간의 의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교사회회의라는 정식화된 구조속에서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내고, 토론을 통해 결정사항을 뽑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⑦ 신진 교사라고 해서 역할 분담이나 의사 결정구조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신진 교사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도록 한다.

2) 특수형 : 경력 교사가 나이가 적고 신진 교사가 나이가 많은 경우

1. 문제 상황

① 나이 어린 경력 교사의 경우, 신진 교사가 나이가 많다고 경력 교사에게 배울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고 느낀다.

② 나이 많은 신진 교사의 경우, 경력 교사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경력이 많다고 매사를 마음대로 한다고 느낀다.

2. 원인

1. 타아소 상황:

① 교사회회의 정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경력, 신진 교사간의 의사 교류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

② 타아소내 민주적으로 교사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신진 교사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이나 역할 분담 구조에서 소외 되었다.

2. 주체의 입장: 신진, 경력 교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또한 서로의 활동의 경험과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며 활동가로서 대중활동을 펼쳐나가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3. 해결 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일반형의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참조

② 나이, 경력을 떠나서 서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 유형 : 기존 신진 교사 (교사부족으로 채용되자마자 타아교사로 입문하게 된 경우)와 기존 경력 교사의 경우

1. 문제 상황

① 타아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입문하게된 신진 교사의 경우 경험의 부족과 가족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타아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분담된 역할을 부담스러워 하며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면서, 스스로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② 기존 경력 교사의 경우 신진교사가 수행해 내지 못하는 역할이 이중으로 겹치는 부담을 안고 대리 수행을 하게 되며 일의 과중함으로 불만이 쌓인다.

2. 원인

① 신진 교사 채용시 신중한 절차와 교체 기간을 갖지 못했다.

② 신진 교사에 대한 입문 교육과 견습 기간이 없었다.

3.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일반형의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참조

② 타아 활동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갖지 못하는 신진 교사가 점차 자신의 주관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가족의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교사간의 단합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유형 : 대외 업무를 보는 대표교사와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교사의 경우

1. 문제 상황

① 대외 업무를 보는 대표교사는 타아소 외부 업무 뿐 아니라 내부 업무(자모회, 실무)에 대해서도 일을 독점하고 원장 역할을 하려한다.

대외 업무를 핑계로 공식적 합의 없이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고 타아업무 중 아무때나 다른일을 한다.

② 내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 교사의 경우, 대표 교사의 고용인 내지

잡무를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을 받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된다.

2. 원인

① 탁아소내 교사간의 역할 분담이 사소한 부분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교사들 임의대로 업무를 수행 하였다.

② 조직을 위해서 상호 역할 분담에 따른 자기 역할, 상대방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연합 활동하는 교사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부족하다.

3.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탁아소내 교사회의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교사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 교사의 대표성도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하여 행사 되어야 한다. 또한 역할 분담에 따른 내규를 명문화하고 교사 모두 이를 준수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② 대표교사의 경우 내부 업무를 보는 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스스로 힘든일, 껌은일을 먼저 하려는 겸손함을 지녀야 하고, 내부 업무를 보는 교사 또한 탁아소 운영이 민주적인 체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대표성, 책임성을 가진 교사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내부, 외부 업무의 역할 분담을 조직적, 연합적 차원에서 흔쾌히 받아 들이고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③ 탁아소 업무상 자모회나 각종 행사때 탁아일 담당등 사정상 참여못한 교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교사회의나 문건을 통해 결정된 사항,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여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유형 : 교사 전원이 아동교육의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1. 문제 상황

교사마다 아동교육의 철학이나 방법이 모두 다르나 특히 가교사의 경우 통제와 강한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 방법을 선호하고 나교사의 경우 자유방임적 방법을 선호 하면서 아이들, 교사간의 교육적 혼란을 초래한다.

2. 원인

① 교사간의 교육관, 방법의 차이를 인식하고 올바른 아동 교육관과 방법론

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했고 그러한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② 평상시에 자기 교육관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상대방 교사의 교육관, 방법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3. 해결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교사회의나 아동 교육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연합적차원의 교육 강습의 활용) 올바른 아동 교육관, 방법론, 아동 특성에 대한 관찰등을 논의하고 수시로 평가, 점검 하도록 한다.

② 아동 교육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그외의 교사간의 교육적인 특성, 소질을 인정하고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마 유형 : 숙식 교사와 출퇴근 교사의 경우

1. 문제 상황

① 숙식교사의 경우 출.퇴근교사가 미루고 간 잡무, 늦는 자모로 인한 탁아 시간 연장등으로 근무의 노동을 도맡아 하게 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불만이 쌓인다.

② 출.퇴근교사의 경우 숙식교사가 공.사생활을 엄격히 분리, 생활 하지 못하거나 다음날 출근 할때 사생활의 연장으로 탁아업무의 정상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때 불만이 쌓인다.

2. 원인

① 교사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상황만을 주장한다.

② 숙식교사의 탁아소 공간이 공적인 장소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출.퇴근교사의 경우 탁아소 업무에 대해 끝까지 함께 책임 지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3. 해결 방안 및 요구되는 자세

① 교사 모두 탁아소가 공적인 장소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함으로써 이해와 배려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해야 한다. 숙식 교사가 탁아시간외에 개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이를 내규화 한다거나 출퇴근 교사가 함께 일과를 마무리 하고 자모에게 탁아 시간업수를 부탁한다.

② 숙식 교사는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생활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

고, 출퇴근 교사도 숙식 교사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동으로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바 유형: 기혼(자녀를 가진)교사와 미혼 교사의 경우

1. 문제 상황

① 기혼교사의 경우 미혼교사가 동일한 역할 분담요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아이에 대한 배려와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줄어들고 아이에 대한 피해 의식마저 갖게 된다.

② 미혼교사의 경우 기혼교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혼교사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활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른 일상 잡무의 요구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

2. 원인

① 기혼, 미혼교사가 각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② 기혼교사에 대한 배려 (육아수당 지급, 회의시 탁아해결을위해 자활, 자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한다거나)가 지역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③ 기혼 교사 스스로 기혼 여성의 조건을 핑계로 활동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

3. 해결방안및 요구되는 자세

① 기혼, 미혼 교사는 서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 하여 공식적 합의 아래 배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② 육아수당 지급, 교사 자녀 문제 해결등 기혼교사의 활동 장애 요소를 각 단위별(탁아소, 지역, 전체)로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직적 대처를 위해 교사조직분과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③ 기혼교사는 탁아활동을 하면서 임신, 출산등의 인생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임신, 출산등도 조직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계획 아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형: 교사 인건비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경우

1. 문제 상황

① 가 교사는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지녔고, 나 교사는 똑같이 받자는 입장이다.

② 다 교사의 경우, 노동의 정당한 댓가로서의 월급을 요구하며 라 교사는 봉사정신에 기초하여 탁아소의 어려운 운영상황에 따라 받자는 입장이다.

3. 해결 방안및 요구되는 자세

무조건 “봉사와 헌신”이라는 자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탁아 활동에 대한 직업 의식, 전문성 확보, 전망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부터 오는 것이다.

① 임금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이며, 생활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저 임금을 고수하고, 이에 따른 확실한 직업관, 전망을 갖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교사간의 임금에 대한 인식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낸다.

V. 전체의 논의를 위하여

교사조직분과는 자체에서 연구, 논의한 “탁아활동가의 품성과 자세”자료를 교사여러분이 가슴깊이 읽고 고민하시기 바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전체가 모인 하계수련회 자리를 통해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에 대해 권낙기 선생²⁾을 모시고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교사들이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 1947년 경상북도 봉화 출생으로 1972년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 비전향으로 7년형 추가되어 옥살이를 하시고 1989년 9월 만기 출소하여 현재 장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우리들이 낸 세금을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이하 지탁연)는 6월 21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를 가졌다.

지탁연 소속 탁아소중 서울의 도봉, 성북, 성동, 종로, 관악, 구로, 영등포구와 안산, 안양, 부천, 성남, 인천과 대전, 부산, 전주, 광주, 군산, 이리 탁아소 교사와 부모님, 자원 활동가, 후원인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성문밖교회 강당을 꽉 메운 참석인들은 먼저 각 지역별로 마련한 동요가사 바꿔 부르기를 하며, 지탁연과 각 지역 공동자모회장이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하는 순서로 요구대회를 시작했다.

지탁연회장의 인사말속에서 지난 시기 정부의 탁아정책을 변화시켜왔던 우리 활동의 성과를 드러내며, 올바른 탁아정책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92 정부의 아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발제속에서 탁아정책의 부실함과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고, 민간 탁아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부, 구로지역 자모의 사례발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탁아문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뒤이어 마련된 인천시 민간 탁아소 지원예산 확보의 과정을 담은 성공사례극에 대한 열띤 호응은 정부의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인천지역 공동자모회장의 요구서 낭독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요구대회는 참석자들이 주위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며, 성문밖 교회에서 영등포역까지 미리 준비한 각 지역깃발과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였다.

최종 집결한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채택된 요구서를 주위 시민들과 함께 공동 낭독하고 올바른 탁아정책이 실현될때까지 교사, 자모들이 중심이 되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이날 대회를 마감하였다.

까치와 까마귀

김난희 (전주 일터어린이집 교사)

(2)

하늘로 날아가는 큰부리 까마귀는 왜기꼬리 영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눈물이라고 ? 그럼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하늘에서 울고 있는 건 누구일까 ?’

큰부리까마귀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생각합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비에 젖은 몸은 자꾸만 떨어웁니다. 며칠째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이 있어도 나이 든 까마귀나 새끼 까마귀, 어린 까마귀들에게 양보하는 큰부리까마귀로서는 허기진 배로 하늘을 나는 것이 무척 힘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 제대로 먹지 못하고 햇볕도 볼 수 없으며 소나무나 참나무에 집도 지을 수 없는 세상에서 더이상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린 까마귀들을 지금처럼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조금전에 힘이 들었던 어깨에 다시 힘이 솟고 하늘로 쪽쪽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올라가자 작은 별이 하나씩 들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갈수록 빗방울이 줄어들고 아름다운 별들이 곧 쏟아져 내릴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이 너무나 어여쁘고 눈이 부셔서 금세 큰부리까마귀의 눈에 굴러들어올 것만 같고 가슴에 새겨질 것만 같아요.

남과 북으로 길게 별들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은하수라는 것을 큰부리까마귀는 어렵풋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별들의 무리가 남북으로 길게 놓이기도 하고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은하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서는 건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맞은편을 보자 서쪽에서도 직녀가 눈물을 은하수에 흘려보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알았다. 왜기꼬리영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눈물이라는 것이 바로

직녀님과 건우님의 눈물이었구나.'

큰부리까마귀는 직녀에게 날아가서 물었습니다.

“직녀님, 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건우님을 만나고 싶단다.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데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구나.”

직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직녀의 이야기를 들은 큰부리까마귀는 이번에는 건우에게로 날아갔어요.

“까마귀야, 난 정말 직녀와 만나고 싶구나. 같이 일하고, 밥먹고, 노래하고 싶단다. 정말 그림고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은하수에 눈물만 흘리게 되는구나.”

큰부리까마귀는 건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자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고싶을까. 얼마나 만나고 싶을까’ 눈물을 툭툭 흘리는 큰부리까마귀의 목은 매여옵니다.

‘얼른 내려가서 이 사실을 다른 까마귀나 까치에게 알려줘야지. 정말 건우와 직녀가 불쌍해.’

큰부리까마귀는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강쪽마을에 도착한 큰부리까마귀는 마을의 물이 아까보다 더 차올라온것을 알고 김대감님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김대감님 마을은 튼튼한 담과 높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아직 큰 난리는 없으니까요. 그곳에 가자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 꿩꼬리영감님과 같이 온 풀빛까치, 노란때까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는 지난 가을에 겨울이 되면 먹으려고 미리 모아둔 식량을 가지고 이제까지 먹고 있어서 아직 건강해 보이고 온몸의 자주빛 광택도 여전합니다. 지난 초봄에 털갈이를 했지만 깃털색은 여전히 황갈색인 노란때까치는 총총거리며 큰부리까마귀를 바라봅니다.

꿩꼬리영감님의 광택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전히 쇠약해보입니다. 풀빛까치는 큰부리까마귀를 흘겨보면서 몸 전체를 푸드득 떨더니 또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심하게 흔들립니다. 풀빛까치는 아예 까마귀 옆으로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풀빛까치가 까마귀를 흘겨보는 것을 낱알이 지켜본 꿩꼬리영감님은 큰부리까마귀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주어요. (다음호에 계속)

연합회 소식

#####

< 지탁연 사무실 이전 >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6월24일 구로구로 사무실 이전을 끝냈다.

< “남북한 탁아제도의 비교” 세미나 참석 >

지난 6월 30일,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차 통일문화 세미나에 양은희 지탁연 부회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남북한 탁아제도의 비교”라는 주제아래 영유아보육법의 운영현황의 문제,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지침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학계, 보사부관계자등 약 100여명이 모였다. 세미나 자료는 지역대표자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받아보기 바란다.

< 제7기 교육강좌 종강 및 수료식 열려 >

지난 7월3일 지탁연 새 사무실에서 제7기 교육강좌의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7기 교육강좌는 현직 교사 23명과 일반인 4명을 포함하여 27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식에는 지탁연 회장, 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교육강좌의 내용에 대한 조별토론이 있는 후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종강잔치를 하였다.



<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지원모임 열려 >

지난 4월11일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 개최 이후 직장탁아소에 관한 사업장내 선전홍보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여 수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준비한 자료집은 7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다. 지원모임내 참여단체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 여성노동자회, 전노협 여성국, 지탁연이다.

또한 지원모임에서는 그간 동방어린이집 (오리엔트내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하였다. 동방어린이집은 6월 13일에 개원하였다.

<전국 도시빈민 협의회(이하 전빈협) 참여 결정-도시빈민위원회 결성키로 >

1. 도시빈민 통일 대오의 필요성

80년대 이후 꾸준히 변화 발전해 온 도시빈민운동은 일반 부문, 지역운동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하며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다. 때로는 전면적인 탄압에 맞서 생존권수호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등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빈민 대중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국의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유연하게 개량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는 활동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도시빈민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키 위해 보다 조직적인 단결의 구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가오는 정권교체기와 더불어 도시빈민 일반대중 뿐만이 아닌 민주주의 실현의 일반적 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빈민 대중의 진정한 통일대오가 필요한 때이다.

전국 도시빈민 협의회는 이러한 통일대오의 필요성속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2. 전빈협 건설과 지탁연의 역할

6월 30일 그동안 빈민지역에서 탁아운동을 펼쳐온 탁아소를 중심으로 본회 내에 도시빈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전빈협 건설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탁아운동과 빈민지역운동과의 통일적인 결합을 꾀하는 가운데 한층 도시빈민운동에 우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표현될 수 있다.

현재의 역량상으로는 능동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탁아문제를 하나의 부문의 과제로서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언

대의 폭과 내용을 확대시키는데 있고 나아가 많은 도시빈민여성의 제과제들을 도시빈민운동진영에서 보다 실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자 함이다.

7/9 전빈협 창립총회 (오후2시, 영등포 성문밖 교회)

7/10 전빈협 창립 기념대회및 강제철거,노점단속 규탄대회(오후2시, 단국대)

< 서울 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 수련회 갖기로 >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이하 자활 대표회의)는 오는 7월 14, 15일, 여주 신록사에서 수련회를 갖기로 하였다. 자원활동의 의미와 탁아문제 인식의 심화를 위해 마련된 이 수련회에는 서울 경인지역에 있는 대학 탁아활동모임 대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

지역위원회 소식

<북부>

6/25 나눔의 집 탁아소 문 닫아

:성공회내 탁아소로 활동하던 나눔의 집이 성공회측이 탁아소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그간 이전 기금으로 모은 수익금을 지역내 새 탁아소를 만드는데 쓰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어린이사랑방은 항시적인 수익사업으로 물품판매 예정.

7/6~12 지역위에서는 자모실태조사 재 실시 하기로

<동부>

6/7 금호, 행당지역(오손도손 애기방)제3회 주민노래 한마당 열려

:단오를 맞아 계획된 이날 행사는 지역내 10곳의 단체가 공동주최하여 노래자랑, 민속놀이 등이 진행되고 마련된 기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하였다.

6/16, 6/19 개나리동산, 오손도손 애기방 요구대회 준비를 위한 자모교육 열려

7/4 "탁아소 규칙과 규율에 대해"교사교육 열려

7~9월 다른탁아소와의 교육내용, 일상활동의 교류위해 교사순환제 실시키로

<봉천>

6/7 봉천 5,9동 단오 한마당

6/26~27 성남, 봉천지역 교사단합대회를 강원도 소금강에서 가져

<구로>

6/6 공동임원 교육열려: 자모회의 필요성, 임원의 자세, 회의진행법등에 대해

6/11~7/11 매주 목요일 한국 여성노동자회 '어머니교실'에 개별탁아소 자모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키로

6/20 그간 준비해온 주변 민간 탁아소 실태조사 마무리 지었다.

6/27 여성복지회관 개관식및 튼튼이 아가방 3주년 잔치

6/30 구로지역 월례모임에서 "자모상담에 대한 워크샷" 열려

7/2~3 구로지역 아동 공동캠프가 수원 그랜드캠프장에서 열려

<수원>

6/5~7 2박3일의 일정으로 지역교사 단합 등반대회를 지리산으로 다녀왔다.

6/9 공동임원 자모회 열음

<안산>

6월을 "민간탁아소 방문의 달"로 정하고 민간탁아소 방문하여 연대기반 마련키로. 아동교육분과는 수.과학 영역 교육자료집 준비하여 8월중 발간예정

6/7 오손도손에기방 헌옷바자회

6/24 안산지역 아동 공동 동물원 견학을 서울대공원에서 실시

<부천>

5/30~31 톰비니 동산, 새날 아기방 공동 헌옷바자회

6/11 총선평가및 정세분석의 내용으로 지역 교사교육 실시

6/13 "환경의 날"행사에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참여, 무공해 물품 판매및 부탁위 홍보전 가짐

6/14 튼튼이 아가방 가족 소풍

<안양>

5/30 우리에기방 자모회 총회에서 임원진 재선출

6/1~7월 우리에기방 "어머니 교실" 총8회 개설키로

6/11 한무리 어린이집 자모회에서는 "어린이 구강검진에 관하여"슬라이드 시청각 교육 시간을 갖고,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공해추방 뱃지달기, 생활속의 실천사항 벽걸이 나눠갖기, 우유팩, 건전지 수거운동 벌이고 있다.

6/21 우리에기방 자원활동가 교육: 한신대, 인하대 총 10명 참석

7/3 안양지역위원회 월례모임: 7/16~17 양평으로 지역위 교사 단합대회 결의, 9월 아동공동운동회 추진 준비모임 하기로

<성남>

6월초 "참세상 10호"발행

6/13 오리엔트 직장탁아 "동방 어린이집"개원, 현재 탁아아동은 4명, 교사 1인 (김 계임)으로 성남지역탁아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음

6/20 "올바른 탁아법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주제의 공동자모회.

:보육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푸른솔에기방 수익사업으로 아이들 여름 티셔츠를 판매, 단체 여름티 주문.

현재 성남지역위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준비중에 있다. 지역 공동아동캠프 준비중.

<인천>

5/15, 5/25 미 신고였던 무지개동산, 세쌍둥이 탁아소 신고

5/23 무지개 동산 이전 (이전주소: 인천시 북구 산곡2동 180-390)

5/30 인탁위 소속 탁아소 시설 운영비 지원확보 확정됨 (총 6,800만원)

6/6 우리동네 어린이집 이전

(이전 주소: 인천시 북구 효성1동 153-7 18동 4반 3층)

6/7 "보은.진관 사건 진상규명과 성폭력추방을 위한 강연회"를 지역내 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열었다.

<대전>

5월 '92년 보육사업지침 검토하는 교사교육

5/25 아동지원에 대해 시청에 질의서 발송

6/1 의례적인 시청 답신 받았다.

6/16 교사교육

6/21 자부모임을 결성

<대구>

5/23 배꼽마당 개원4주년 기념 잔치

5/30 나눔의 집 탁아소 문닫아:교사의 부족과 재정난등이 가중되면서 4년 4개월의 활동을 정리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탁아소 운영의 성과와 한계,이후 작업에 대해 논의

7월부터 활동할 지역위원회 실무간사 구함

<군산>

5/19 해뜨는 동산 최옥화 자모의 심장 판막증 수술비 마련 모금운동 시작: 어려운 가정형편에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있는 것을 보고 탁아소에서 부터 모금운동 시작하고 CBS라디오 뉴스와 지역신문에 여론화.

교사조직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학습과 일상적인 토론 분위기를 조성키로

아동지원과 시설지원에 관해 시청에 질의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아동 지원 신청서 작성 시작.

<광주>

우리동네 아기둥지가 '사랑의 놀이방'(구립형 탁아소)으로 지정받아 재정 지원 받기로

5/9 "광주시 탁아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열려

<부산>

꼬마동산:탁아소 이전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집주인이 시설의 보수와 전세보증금 동결을 약속하여 지역내에 계속 남기로 결정.

여성단체장 모임 :부탁위,여노,여대협중심으로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부탁위 소속탁아소의 운영기금마련을 도와주기로 하고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점차 힘을 모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자 계획함

6/13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에 참여:부탁위는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데 이번 모임에서 회원확장과 후원금모금에 대한 안전과 "영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심포지움"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모임과 모임

1. 지역대표자회의 (이하 지대의)

< 6/4 서울 경인 지대의 >

아동교육분과 내 교사 소모임에 대해서는 자발적모임으로서 지대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기로. 아동교육특강에 대해서 지대의는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분과와 사무국에서 운영하기로 결정.

성폭력 토론회를 통해 여언의 중점사업인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내부공유가 안되었음이 지적되어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소식지의 기획으로 잡고 지역내 일상 활동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전할 것과 자모회 교육자료를 자모조직분과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요구대회 준비와 어린이날 총평가서를 통과시켰다.

< 6/16 지방 지대의 >

그간 정책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탁아운동론에 대한 정리 발제가 있었으며,이후 정리된 문건을 가지고 재토론하기로 했다.요구대회에 대한 지역별 점진작업과 이후 작업을 논의하고 대구지역위 불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지방 교사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아동교육분과 모임과 좀 더 논의를 하여 결정키로 했다. 수련회는 대전에서 2박 3일정도로 내용은 육아의 사회화,정책연구부 발제내용,아동교육의 실기강습(재롱잔치등)과 지역별 벽보마련,품성론논의 등이 제안됐으며,준비팀에 대전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전빈협참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대에 제출을 요망.

< 6/18 서울 경인 >

요구대회에 대한 총 점검과 함께 대구지역위의 요구대회 불참의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요구대회 준비작업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수련회는 대전에서 2박3일 (7/30~8/1)진행하고 준비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2. 분과

< 자모조직 >

5월, 6월 모임을 통해 살펴본 소모임 사례분석과 자모회 임원 교육, 자모회 프로그램검토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감키로 하고 7월 21일 상반기 활동평가와 하반기 계획 잡을 예정이다.

< 교사조직 >

중간간부대회 이후 제기된 “탁아활동가의 품성과 자세”논의 마무리하고 7월 6일 교사용 설문지 분석의 마무리와 상반기평가를 끝으로 일정을 마감하고 7월 23일 분과원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아동교육 >

지난 6월 16일 건대뫼산에서 분과원단합대회를 가졌다. 7월모임은 하계수련회에 교재교구 전시회를 위한 준비이다.

3.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지난 7월 1일 인천 송도유원지에서 단합대회겸 요구대회 평가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7월8일 모임은 상반기 개정활동의 평가및 하반기 일정 논의로 이어진다.

4. 연구부

< 탁아정책 연구부 >

탁아운동이 전반적으로 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다 전문적, 과학적 근거마련이 요구되었다. 92년 3월, 지탁연내 정책연구부 신설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구성원은 탁아관련 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분들, 전.현직교사 등 9명이며 격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92 상반기 연구과제는 1)우리나라 민간탁아운동사 2)외국의 탁아제도 및 정책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3)우리나라 탁아정책의 결정요인 4)국가의 탁아제도에 관한 이념 등이다. 그간의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부족하나마 금번 하계수련회 시기에 맞춰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교육 연구부 >

교육연구부와 아동 교육분과장 모임이 주최한 제1회 아동관 토론회가 25명

의 교사의 참여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후 격월로 체벌에 관한 문제, 지탁연의 교육목표 검토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는 하계수련회 내용중 “육아의 사회화”특강의 내용을 검토중이다.

5. 상설기구

<수련회 준비위원회>

지난 6월30일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모였다.

구성인은 박영희(인천지역대표), 조용란(동부지역) 김혜은(봉천지역), 권오원(지방지대의 수련회 준비위원), 최현숙(회장), 양은희(부회장), 최선희(사무국장) 외 아동교육, 교사조직분과원중 1인씩이 결합한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수련회 기획안을 작성하여, 지대이에 제출하고 수정보완하여 인준을 받았다. 올 하계수련회의 경우 하루를 야외에서 신나게 보내는 등 재미가 넘칠것이라는 후문.

<도시빈민 위원회>

지난 6월 30일 전국 도시빈민 협의회의 조직적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지탁연 수도권 지역내 빈민지역 탁아소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인은 채금주(북부지역 둥근나라), 김경태(북부 어린이사랑방), 천인숙(중부 개구장이), 조용란(동부 오손도손 애기방), 최선희 사무국장, 최현숙 회장이다. 전빈협 결성과정 논의 보고및 이후 활동에 대해 활발히 토론한 결과 도시빈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 환영합니다 ! *****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으로 최초로 직장탁아소를 설치한 성남 동방어린이집이 6월 13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71번지 2층

전화: (0342)732-0704

.구로지역 꾸러기동산에서 자원교사 활동을 해오던 이정희씨가 새싹들의 방

교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새날 어린이집 교사로 이재선씨가, 우리 아가동산 황보영희씨가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주지역의 금암어린이집에 오마리아씨가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며,전국의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권하고 싶은 책 ***

* 카이 다시 웃다 —하트웃 가겔만 지음, 리은숙 옮김, 두레 펴냄—
자폐아동에 대한 문제를 다룬 책. 웃음과 눈물, 우스꽝스러움이 끊임없이 접맥되고 섞여드는 자폐아동의 세계를 통해 장애인을 보는 이 사회의 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우쳐 주면서 사랑은 어떤 장애도 넘어설 수 있다는 감동을 준다. (268쪽, 3,600원)

*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우리교육 편집부 엮음, 우리교육 펴냄—
식품, 쓰레기, 약품, 대기, 수질, 소음, 작업장, 농약, 방사능 등 우리주변의 공해를 11장으로 나누어 원인부터 해결방법까지 다루고 있다. 아이들을 등장시켜 대화, 토론형식으로 어렵고 지루하기 쉬운 문제를 재미있고 쉽게 엮었다. (280쪽, 4,000원)

*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 —최성민 지음, 심지 펴냄—
휴가철을 맞아 현직기자가 쓴 색다른 여행 안내서.
'진안 매사냥'현장 등 이미 소멸돼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민속을 찾아낸 것, 석기시대의 돌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충남 아산군의 메뚜기 잡기 대회 등 '우리 것'과 '우리 자연'에 대한 애착에서 발굴된 것이다. 소개된 74곳은 소재별, 내용별로 11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있고 각 여행지 마다 지도와 교통편, 숙박, 토속음식 등의 안내를 곁들였다. (5,800원)

요구대회를 마치고

- 동부지역 오손도손 애기방 박정에 -

아침 8시 20분쯤 '선생님'하고 외치며 진이와 배불뚝이 진이 엄마가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빙그레 미소피며 진이엄마 하시는 말씀 "진이가요 엄마뺏속에 들어가 애기랑 놀러 오겠다며 머리를 들이 박는 거 있죠." 우리의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언제까지 꾸밈없고 밝게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모아 본다.

지난 수요일 중앙 '영유아 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랜만에 가쁜 마음으로 인천 송도로 향했다. 손과 어깨엔 먹을 것을 들고, 메고 모자를 쓴 우리는 마치 소풍나온 아이들처럼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말로만 들던 송도 유원지.

그날이 마침 인천 시민의 날이어서 입장료를 반액만 받는다는 간사의 말에 어쩔 이렇게 날을 잘 잡았느냐고 또 한번 크게 웃을 수 있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 그리고 바람이 부는 곳.

서해의 바람, 소금기 있는 조금은 텁텁한 바람, 그리고 상반기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요구대회를 치러낸 개특위 동지들과 함께 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서해 바람에 훌훌 날려 보내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도 평일날 지택연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도 행복하게 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소박한 기쁨과 행복은 이후 많은 과제와 사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토록 버겁고 어렵지만 해내고 만 요구대회에서 개특위가 예측한 이상의 성과와 의지의 표출을 보며 자신감과 의욕들에서 불끈 불끈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 된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지택연 전체 교사들의 높은 결의들을 모을 수 있을까? 자모들이 많이 참석할까? 장소가 맘에 들지 않는데..., 과연 평화 대행진과 선전전을 효과있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요구를 힘있게 받쳐 낼 수 있을까? 등등. 많은 고민과 우려들, 사후 작업에 대한 추동력과 책임감...

우리는 해냈다. 준비주체인 개특위원과 전 현장 교사들 그리고 자모들이 해

낸 것이다. 평가가 나올 것이고 물론 긍정적인 면 보다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없던 사업을 그 누구의, 어느 단체의 도움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해낸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탁아에 대한 열정과 결의들을 뜨겁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지혜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것이다.

더욱이 탁아운동의 주체는 우리교사와 부모들임을 다시한번 굳게 새기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싸우는 길만이 법개정으로 가는 것이고 올바른 탁아정책을 실현 하는 것이고 육아의 사회화로 가는 길이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교사들의 전투를 외치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인의 개특위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배려를 해준 오손도손 애기방 교사들께 감사한 마음 보낸다.

그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일맞은 분량으로 정기적으로 나왔으면

- 구로지역 구로놀이방 권혜진-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 겨울 수련회 사진을 표지로 한 교사소식지를 받아드니 조금은 시원해진 느낌이다. 겨울 수련회에서 대표자회의와 지역간, 교사간의 유기적인 연관 그리고 교사에게 신속한 정보공급을 위해 발간하기로 했던 교사용소식지가 조금은 늦어졌지만 이렇게 우리들 손에 쥐어지게 되어 반갑다.

이번 준비호에 실린 지탁연 조직체계, 이달의 인물(변미양 선생을 찾아서), 연합회 소식, 탁아관련 기사모음은 교사용소식지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반갑게 읽었다. 그러나 내용중에는 기존에 문건으로 정리되어 나왔던 것, 시의적으로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고 교사가 쓴 동화도 우리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동화가 아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교사용 소식지를 대하면서 무엇보다 월1회의 발간이 꼭 지켜져서 현장교사들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소식지가 너무 무거워져서 월1회 발간이 불가능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교사용소식지가 자료집화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지탁연 식구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담겼으면 한다.

지탁연 소식지인 「우리네 아이들」과는 또다른 위상으로 발간되는 교사용소식지는 편집진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탁아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선전 교양지로 자리해야

- 부산지역 통신원 이기자킴터 이원경 -

먼저 「교사용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느낀점은 무척 소박하면서도, 궁금했고 가렵던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탁연을 반석같이 꾸리고 교사, 자모, 지역주민을 한 사람같이 만들어 지탁연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 교양지로 자리잡아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사 소식지」를 월1회 발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 봅니다. “ 화 이 텅 ! ”

일에 대한 확신과 동료들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진 소식지

- 중부지역 개구장이 어린이방 박영미 -

「교사들의 소식지」를 받은 순간의 느낌은 내가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뿌듯함이었다.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우리들의 소식지에 바람이 있다면 우선, 중앙과 지역이 기동성있게 연결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튼튼한 통로가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우리들 모두의 중심체인 지탁연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바르게 계승, 혁신하고 그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나침반이 없는 항로에서 배는 침몰하지만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다. 소중한 길잡이가 있으므로.

탁아활동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 전주지역 일터 아기들의 집 김미옥 -

먼저 지탁연 교사들의 소식지가 나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식지 준비호를 보면서 저희 지역과 다르게 앞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우리’라는 하나의 커다란 틀과 조직의 힘을 느낄수 있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준비호’에 대해 저희 일터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탁아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기획부문과 총선 평가서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 ‘기획’은 울

해 지탁연의 활동중 정부와의 투쟁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총선 평가서는 각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어렵다는 생
각이 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세를 파악하는 속에서 정부와의 투쟁방법이
나 성과등을 내놓을 수 있으므로 매시기 정세속에서의 지탁연의 활동방향은 소식지
에서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 글은 지탁연이 안고 있는 지역간의 차이를 인식하
고 교사들에게 쉽게 와 닿아 모두가 자신의 일로 고민 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
입니다. '소식과 소식'부분으로 지탁연 활동과 각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타 지역의 활동을 보며 분발할 수도 있고 지역간의 연결이 조금은 매끄러울 듯
싶습니다. 아동 교육에 관한 기사는 실질적으로 교사, 아동,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
습니다. 앞으로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탁아활동가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교육들
이 폭넓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소식지가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교류와 각 지역의 활동 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국의
지탁연가족 모두가 힘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 봅시다.



준비호를 처음 내고 어떻게 읽혀질까. 어떤 평가를 받게될까 마음속으로
조마조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교사들의 "필요한 시기에 나왔다."
"튼튼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동지가 주위에 있음을 느끼고 가슴 뿌듯했다." 등
등의 의견을 듣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역량이 충분하거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식지를 낼 수 있었
던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우리 활
동의 지침이 될 내용이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소식지를 만들었다. 소식지는 전국 동지들의 목소리, 의견을 한자리
에 모으고 통일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내는 장이 될것이다. 소식지는 우리 교사
들 모두의 것이다.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내려는 교사들의 의지가 모여질 때
비로소 소식지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너무 내용이 딱
딱하다.", "내용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 "편집을 더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한
다." 등 애정어린 비판을 귀담아 들으면서 매월 교사 여러분이 알고싶은 내용, 알
아야 할 내용들로 지면을 꽉 채울 것을 약속한다.

소식지를 통해 전국의 지역소식, 개별 탁아소 소식들을 원활히 교류하기위
해서는 지역교사 여러분들이 편집부로 소식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북부지역
오민기 선생님과 부산지역 이원경선생님이 지역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내에서 일어난 행사와 일, 에피소드 등을 전국의 교사
에게 알릴 지역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하루빨리 전지역에 통신원이 활동할 수 있도
록 애써 주십시오.

교사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어떠한 내용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전체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탁아소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생활 이야기, 교사여러분의 글이라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투
고하신 글에 대해서는 푸짐한 (?)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실을 사진을 공모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주요 활동을 나타내는 사진, 좋은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매달 소식지 표지사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소식지의 이름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전 교사가 좋은 이름을 붙여줄때까지 “교사들의 소식지”라는 이름을 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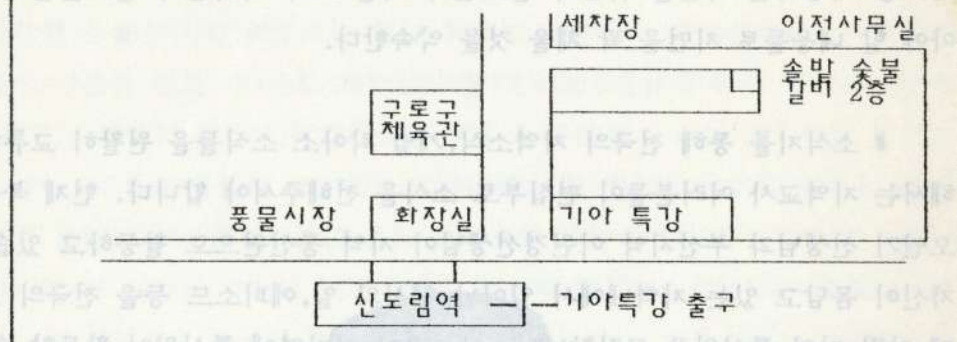
소식지의 이름을 찾아 줍시다.

**** 광고 ****

- * 교육방송 노조에서 모아 전달해 준 이면지가 많이 있습니다. 탁아소의 아이들 그림종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합회로 연락 주세요.
- * 6/21 요구대회 비디오테이프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 * 요구대회 선전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 선전물로 활용 바랍니다.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이전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변경 전화번호 : 838 - 3296~7



제목:교사용소식지 창간호

발행일:1992년 7월 10일

발행인:최 현숙

편집인:정 희연, 서정은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16호

